

해외출장 결과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목적 :

- 일본의 지역특화농산업 육성실태 현황 조사

2. 출장자, 출장기간 및 출장지

- 출장자: 박문호 연구위원
- 출장기간 : 2014. 9. 03 ~ 9. 06 (3박 4일)
- 출장지: 일본 큐슈일대
 - 쿠마모토현, 후쿠오카현 야메시 등

3. 주요 조사 내용

- 지역특화 농업의 발전전략
 - 지방자치단체(현)의 추진전략
- 농업 부문별 조직의 지원시스템
 - 연구개발, 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
 - 산·학·관·연의 네트워크 구축
-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동향
 - 농상공연대, 6차산업화, 로컬푸드 등
- 지역특화농산업의 육성효과
 - 농업의 성장
 - 지역활성화 사례(시·정·촌)

4. 주요일정

No	일 자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수행 업무
1	9.3 (수)	인천 (10:05)	후쿠오카 (11:25)	(오전) ○ 11:30 일본도착(TW 291) (오후) ○ 14:00 구마모토학원대학 야마우찌 료이찌 교수 ○ 15:00 구마모토 현청방문	○ 출 국 ○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○ 구마모토 특화농산업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○ 푸드밸리 구상 조사
2	9.4 (목)	체	재	(오전) ○ 10:00 구마모토JA중앙회 야마우찌교수, 대학원생 동행 (오후) ○ 아소 농촌지역 견학 ○ 구마모토 학원대학 관계자 간담회	○ 일본의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조사 및 전문가 면담 ○ 6차산업화 지원제도 및 전략 조사
3	9.5 (금)	체	제	(오전) ○ 야메시로 이동 (오후) ○ 야메시 농업진흥과 - 농산원에담당자 면담 椎窓孝雄(シイマドタカオ) ○ 큐슈대학 - 후카가와 히로시 교수 면담	○ 일본의 6차산업화, 농상공연계 우수지역 사례조사 ○ 야메시 녹차산업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○ 후쿠오카 지역의 특화농산업 현황 및 전문가면담
4	9.6 (토)	후쿠오카 (12:25)	인천 (13:45)	(오전) ○ 후쿠오카 공항 출발 - 한국 도착(TW 292)	

5. 주요 면담자

면담자	기관명	직위	연락처
타이스케 오노	구마모토현청	부지사	090-2720-4960
키하라 토루	구마모토현청	푸드밸리 추진실	096-333-2020
료이치 코다	구마모토학원대학	학장	096-364-5161
타카오 시마다	야메시	야메차 부회장	0943-23-1118

II. 주요조사내용

1. 쿠마모토 縣南地域 푸드밸리 구상

- 2013년부터 사업착수,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6차산업화와 농상공연대를 핵으로 한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 중
 - 구마모토현 남부의 농업 중심지역(12개 시정촌)을 푸드 밸리 지역으로 설정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의 연계강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본 사업을 실시함.
 - 현 남부지역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농촌지역 자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임.
 -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추진
 - 기존의 공정한 분배 중심의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개별경영체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(보통 업 방식으로 전환)
 - 사업추진의 동력은 「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」, 「농상공제휴촉진법」 관련자금을 활용, 특히,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·학·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, 초점을 둠.

1.1. 푸드밸리의 기본구상

1.1.1 푸드밸리 구상의 배경

- 2011년 12월에 책정된 「政令지정도시 탄생후의 현내 각 지역의 장래상」(이하 비전이라 함)에 있어서 현남지역 주요계획의 하나로서 현내 유수의 농업지대지라는 특성에 착목하여 식품관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,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고 지역기업의 집적을 도모하자는 것임.
- 즉, 현남지역 활성화의 기폭제로서 「푸드밸리 구상」을 책정하여 관계자치체 및 산업계가 일체화되어 현남지역의 풍부한 농산물등 활력있는 산업의 진흥과 지역

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임.

1.1.2. 구마모토현의 현상과 과제

- 쿠마모토는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현북지역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농업지대인 현남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, 현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쿠마모토현의 제 1과제로 되어 있음.
- 현남지역의 풍부한 농림수산물 및 쿠슈 신간센, 고속도로등의 고속교통망의 결절점이 가지는 포텐셜을 최대로 활용한 전략을 추구하게 됨.

1.1.3. 푸드밸리의 대상 산업

- 농림수산물, 가공식품, 음료등 식료산업과 의약품, 화장품등을 포함, 생산 및 유통, 소매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과 관련한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. 특히, 현남지역의 주 생산물인 농산물, 목재등 식품 이외의 1차산물 및 관련산업도 식료 관련산업에 포함시켜 본 구상의 대상으로 함.

1.2. 쿠마모토현의 食관련산업의 현상과 수요

1.2.1 식품산업 부문별 과제

<생산·가공부문>

- 쿠마모토현의 식품관련제조업은 영세사업자가 많고,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음.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6차산업화 및 농상공연대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. 또,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이용촉진이 과제로 되고 있음.

<유통·판매부문>

- 생산물의 판로의 확보 및 확대가 당면과제로 되어있음. 소비자 직판의 지역간 격

차가 많고, 관내 무역항인 八代항의 이용율이 낮음. 수출품 보다는 수입품의 이용율이 높음.

<브랜드 부문>

- 현남지역은 토마토등 국내 비중이 높고 경쟁력을 가진 상품도 있지만, 소주의 경우 산지로서의 이미지가 약하고, 쌀, 토마토등 현남지역의 주요한 생산물도 큐슈 지역외에서는 인지도가 낮음.

<연구개발 부문>

- 지역내 각급 연구소가 많이 있지만, 효과적으로 연구개발 및 신상품개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의 강화 및 지원기능의 충실이 요구됨.

1.2.2 「食」 관련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수요

- 생산자 와 가공업자간의 제휴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않으며, 지역간 격차도 크고,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의 활용이 미흡함. 따라서 지역전체로서 지역내의 생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산업화 및 농상공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.
- 현남지역은 식품관련 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지만 영세하고 경영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상황임. 이에따라 연구개발 및 신상품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음. 따라서 「食」 관련 기업·연구기관의 기능강화와 집적이 요구됨.
- 현남지역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, 잠재적인 브랜드의 힘을 가진 품목이 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지역브랜드의 형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. 이러한 생산물의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품의 판로확대 추진이 요구됨.
-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八代지역에는 젊은층 농업자의 비율이 높고 각 지역에 있는 농고에서는 가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, 식관련가공업의 담당자 확보에 유리한 조건임. 지역의 리더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육성 및 관계자의 제휴가 요구됨.

1.3. 구상의 추진방향

1.3.1. 6차산업화 농상공연계에 의한 지역내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

- 지역내 생산한 농산물을 1차가공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의 역내 가공을 촉진하고, 6차산업화 및 농상공연계를 촉진함. 가공기술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, 6차산업화 플래너, 상품개발 어드바이스 코디네이션등 인재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

1.3.2. 타 지역과 차별화에 의한 고부가가치화

- 토마토등 전국에서 점유율이 높은 작물 또는 소주등 지역특산물로서 인지도를 높여 지역브랜드의 확립과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.
- 특히 GAP, HACCP등 의 인증 취득을 촉진하는등 먹거리의 안전·안심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

1.3.3. 생산·유통체계의 정비

- 가공용 농산물의 생산확대 및 안정생산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고, 가공용원료의 공급체계를 강화한다. 또, 농림수산업분야에의 ICT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육상황을 비롯한 생산관리 및 수발주의 일원관리에 의한 균일화·고품질화 및 기계화에 의한 생력화·효율화등에 의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함.
- 특히, 노후화된 농산물집출하시설등의 재편, 광역이용을 추진하는등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가능한 집출하체계의 재편·강화를 도모함.

1.3.4. 지역내 생산물등을 지원하는 기업·연구개발기능의 집적

- 농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의 농업참여를 비롯해 애그리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, 가공시설등 식관련시설의 설치를 촉진함. 특히, 계획적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고,

지역의 고용창출에도 유효한 식물공장에 대하여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의 구축을 지원함.

- 지역의 식품관련산업에 대하여 상품개발, 판로개척등 고도화·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조직을 지원하고, 상품개발 어드바이저의 파견, 연구기관등과의 제휴에 의한 기술력의 향상등 소규모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, 지장산업의 육성에도모함.
- 농업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에 관한 시험 연구기능을 강화함. 또,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·연구·개발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산업기술센터와의 제휴를 통하여 식품가공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함.
- 이러한 공공시험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농림업자 및 상공업자, 민간연구기관, 대학 등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, 식품가공에 고나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함.

1.3.5. 인재육성의 강화 및 추진체제 구축

- 인재육성: 6차산업화 및 농상공제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림업자에 대한 식품가공 및 판매등의 새로운 기술습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, 상공업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연수의 실시등 전문분야의 지식외에 관련분야의 지식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추진함.
- 추진조직의 설립 및 기능강화: 푸드밸리 구상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의 농림수산업자, 상공업자, 상공회의소, 농협, 현 및 시정촌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「푸드밸리추진위원회」를 설립함. 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제휴의 체제를 구축하고, 식품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. 또, 푸드밸리 구상추진의 종합창구 생산물, 기술, 인재,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폭넓은 정보제공을 도모함.

2. 구마모토헌 6차산업화 추진동향과 실태

- | |
|--|
| ○ 구마모토헌에서는 구마모토헌 농협중앙회내에 중앙정부의 6차산업화를 지원 |
|--|

하는 구마모토 6차산업화 지원센타를 설치, 운영하고 있음.

- 6차산업화지원센타에는 6명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6차산업화 추진은 농가만이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2차, 3차 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고려하면서 추진 중임.

- 현재 일본의 대기업은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이들과의 융합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(법인체)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.
- 현 고유사업으로서 농업참여기업지원강화사업, 기업제휴상품개발사업, 기업입지촉진보조사업, 기업입지촉진자금융자등이 있음.

2.1. 6차 산업화 추진 체계

2.1.1. 사업신청 과 인증

○ 6차산업화 관련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자 또는 촉진사업자가 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에 의거 “종합화사업계획서”를 작성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사업구상 및 사업내용의 구체화, 사업계획의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마모토현 6차산업화 지원센타(현 농협중앙회에 설치)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, 구체적인 계획수립시 지원센타 소속 컨설턴트(민간전문가)를 파견하여 자문에 응함. 단, 현단위를 초과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센타로부터 지원을 받게됨.

○ 사업의 인증기관은 현의 농정국 지역센타로서 사업자가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인정하는 역할을 담당함.

○ 6차산업화 지원센타의 역할은 ①사업의 발굴→②사업이 필요로 하는 신상품개발, 설비투자, 판로개척등에 대한 어드바이스 →③「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」의 인정에 관한 신청서 작성지원→④「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」의 인정에 관한 보조사업신청서의 작성지원→⑤「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」의 인정후 사업실시에 관한 자문을 실시함.

2.1.2. 「종합화사업계획」의 인증요건

① 사업실시 주체는 「농림어업자」

- 농림어업자는 개인·법인/ 농림어업자자가 조직한 단체: 농협, 집락영농조직

② 사업내용

-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생산의 경우(가공부문 도입등)
- 사업자가 현재까지와 다른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할 경우(직판장 개설 등)
- 상기의 두가지 사업추진에 필요로 한 생산방식의 개선(원료생산등)

③ 경영의 개선(다음의 두가지 지표를 만족 시킬 것)

- 대상상품의 지표: 매상고가 5년간 5%이상 증가할 것
- 사업주체의 지표: 사업소득이 향상되어 계획종료 년도에 흑자가 될 것

④ 계획기간: 5년이내(3 ~ 5년)

2.1.3. 종합화사업계획 인증의 메리트

① 6차산업화 서포트에 의한 종합적 컨설팅

- 6차산업화 구상에서 인증까지의 업무지원에 덧붙여 계획인증에 따른 사업실시 기간중 과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지원

② 보조금

- 신상품개발, 판로개척에 대한 보조(보조율: 통상 1/2→ 인증자 2/3)
 -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위한 기기의 렌탈·리스료 및 시장평가의 실시,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에 출전, 팜플렛의 제작등도 대상
- 농업법인등이 새로운 가공·판매사업에 참여시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(보조율 1/2)
 - 사업실시주체는 「6차산업화·지산지소법」 또는 「농상공제휴법」의 인증을 받은 민간단체에 한정

③ 융자등

- 무이자융자자금(개량자금)의 상환기간·거치기간 연장
 - 상환 10년이내→12년이내, 거치 3년이내→5년이내, 상환액: 개인 5천만엔, 법인·단체 1.5억엔
- 촉진사업자에 대한 무이자 융자자금(개량자금등) 대부
- 단기운전자금(슈퍼 S자금)의 대부
 - 상환액: 개인 1천만엔, 법인 4천만엔
- 식품가공·판매에 관련한 자금에 대하여 채무보증

○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로 부터의 출자

- 상환액: 새로이 설립된 합병사업체의 자본금의 1/2

○ 시설정비등의 수속

- 직판시설등을 건설할 때 농지전용등의 수속 간소화

2.1.4.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의 활용

○ 6차산업화 사업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·민이 제휴하여 자본을 형성하여 (주)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(A-FIVE)를 설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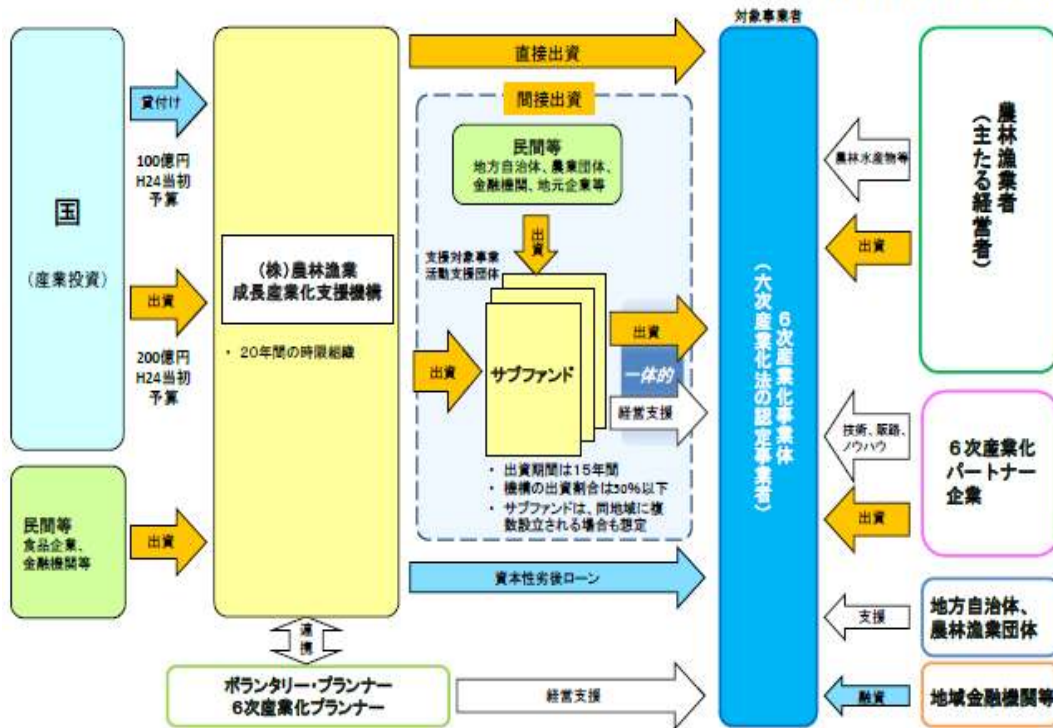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상시, 기구의 발행주식의 1/2이상을 보유하도록하고, 나머지는 식품기업등 민간자본이 참여하도록 하고있음.

○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는 다시 출자금으로 도도부현에 6차산업화서브펀드 기구를 설립하여 각 지역 6차산업화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음.

- 서브펀드에 의한 출자는 보조금등에 비하여 용도의 자유도가 높고, 펀드 또는 파트너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기자본보다 큰 사업비의 확보가 기능하도록하고 있음.
- 서브펀드의 주체는 지역마다 다른데, 구마모토현의 경우 肥後6차산업화투자사업유한책임회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.
- 서브펀드의 출자금은 (주)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로 부터의 출자와 민간자본금으로 구성됨.

農林漁業成長産業化ファンドによる資金・支援の流れ

(本図は資金・支援の流れを示したものです)



2.1.5. 6차산업화 「네트워크 활동 교부금」

○ 6차산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농림사업자 만으로 가공·판매사업 추진 만이 아니고, 새로운 판로취득이나 개발과 관련한 사업자나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다른 농림업자와의 제휴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.

○ 따라서 다양한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상품의 개발 및 판로개척, 농림 수산물의 가공·판매시설의 정비등을 지원하고 있음.

□ 지원의 개요

○ 사업실시주체를 포함하여 3자 이상이 제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함. 이 네트워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상 제휴자를 명기하면 사업 지원대상으로 함.

- 주로 도도부현구역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함. 도도부현을 뛰어넘는 광역네트워크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채택사업으로 지원함.
-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대규모로 짜여진 6차산업화조직도 대상이 되므로 시설·기계등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설정하지 않음.
- 추진사업과 정비사업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도도부현 단계에서 6차산업화 프래너 등을 배치하여 개별상담의 실시 및 연수회·교류회의 개최에 의한 6차산업화를 꾀하는 농림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
- 사업실시주체는 사업실시계획을 도도부현(시정촌 경유)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

☐ 추진사업사례

- 시정촌이 농가를 불러 JA, 법인증자, 식품산업사업자, 관광업자등과 제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
-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프로젝트 검토회를 개최하고, 구체적인 사례조사 및 추진계획을 작성
- 호텔이나 토산품점, 직판소등에 판매하기 위해 법인정자가 토마토제리등의 신상품을 개발등 지원

☐ 정비사업사례

- 법인정자(6차산업화 및 지산지소법 인정자)가 토마토제리를 제조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직판장등을 개설하는 경우 지원

2.1.6.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

☐ 추진사업(소프트사업)

<신상품개발 · 판로개척 이외의 추진>

- 도도부현, 시정촌, 민간사업자, NPO법인, 공익사단법인, 공익재단법인, 특별민법법인, 농림어업자단체(JA등), 상공업자단체(상공회등), 식료사업클러스터협의회, 지역협의회, 사업협동조합, 기업조합등 농식품산업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일체

<신상품개발, 판로개척>

- 농림어업자, 민간사업자, NPO법인, 사업협동조합, 기업조합, 농림어업자 단체, 상공업자 단체, 민간사업자등 사업실시 주체

<사업내용>

-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회의 및 심포지움 개최등
- 프로젝트 조사 ·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개최 및 사례조사, 추진계획 · 공정표의 작성
- 프로젝트 리-더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젝트 운영등에 관한 지식 ·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비즈니스 강좌의 수강
- 신상품의 개발을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패키지의 개발, 시제품의 시식회, 시험판매의 실시, 개발된 신상품의 상담회 출전, 팜플렛의 작성등
- 정비사업(하드 사업)

<대상 사업주체>

- 6차산업화 · 지산지소법 또는 농상공등연계촉진법의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단체 또는 중소기업자

- 농림어업자단체는 농림어업자 3호이상인 주된 구성원(상시종사자 3인이상) 또는 출자자인 단체
- 중소기업자는 농림어업단체와 제휴하여 자본금액 및 출자총액이 3억엔이하의 회사 및 상시사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의 법인(대기업 제외)

< 사업내용 >

- 농림수산물등의 가공·유통·판매등에 필요한 시설
 - 출하시설, 처리가공시설, 고부가가치화, 지역생산·가공과의 제휴등을 위한 종합적인 판매시설, 지역식자재제공시설 및 부대시설
- 농림수산물등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등(가공·유통·판매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)
 - 간이 토양기반정비, 농업용수시설, 건조조제저장시설, 육묘시설, 부대시설
- ※ 농림업단체가 실시하는 경우는 단독으로도 사업실시 가능
- 식품등의 가공·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 - 농림어업단체등과 제휴하는 중소기업자가 실시하는 식품등의 가공·판매를 위해 정비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

2.2. 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실태와 과제

2.2.1 인정실태

- 「종합화사업계획」의 전국 인정 건수는 2014년 2월 현재 69건(신청건수 전국 5위)으로 전국의 인정건수 1,806건의 1.4%이며, 큐슈지역내에서는 미야자키현의 70건에 이어 2위임.
- 사업내용별로 보면, 가공·직판장이 74.8%, 가공 13.6%, 가공·직판·레스토랑이 5.0%, 가공·직판·수출이 4.1%, 직판장이 2.5%를 점하고 있음.

- 농림수산물 품목별로는 채소 30.4%, 과수 18.7%, 쌀 6.5%를 점하고 있음.
- 타 산업과의 제휴한 조직의 인정 건수는 쿠슈지역이 65건으로 전국의 612건의 약 10%를 점하고 있음. 농상공제휴이후의 성과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임
-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공업자의 76%, 농업자의 60%가 매상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농상공제휴외에 의료복지와 식농의 제휴(생약, 건강식품부문), 민간기업과 시험연구기관등과의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음.

2.2.2. 6차산업화의 과제

- 6차산업화의 공통과제는 ①비전의 명확화·공유화가 필요하다 ② 마케팅의 실천문제, ③조직관리의 실행문제로 나타남.
- 6차산업화 추진의 애로요인은 인재의 부족과 노하우로서 영업·판로개척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, 다음으로 가공을 들고 있음.
 - 실패사례의 경우 상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정부의 시설보조에 대한 기대 또는 지역에 가공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있다는 정도의 안일한 판단에 의한 사업추진의 경우가 많음.
-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담회등의 참가하여 마케팅의 발상 및 경영감각을 체득하는 것, 인재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매뉴의 활용, 2차·3차 사업자와의 네트워킹이 유효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음.

3. 야메시 차산업 진흥실태

- 후쿠오카현 야메시는 차산업규모는 영세하지만(전국생산의 2%), 시즈오카, 교토 우지와 함께 일본에서 고품질 차산지로서 유명하며, 특히 우로차는 전국품평회에서 매년 1위(12년 연속)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명성

을 유지하고 있음.

- 야메시는 「차의 나라 야메」라는 슬로건 하에 차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음. 차 부회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, 판매는 JA를 중심(전체 판매량의 56%)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3.1. 야메시의 차 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

3.1.1. 판로확대

- JA 후쿠오카 야메의 공판사업 활성화
 - JA의 차 생산판매액은 야메시 총판매액 50억엔의 56%인 28억엔에 이르고 있음.
 - 2008년에 야메차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직접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 - 드링크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야메차 드링크를 개발하여 시판중
- 차 수출의 추진
 - 국내 시장의 축소와 해외의 일본식 붐에 힘입어 2007년부터 EU와 수출상담을 추진, 2012년에는 3.1톤의 차를 유럽에 수출하였음.

3.1.2. 기술지도

- 명품 야메차의 기술개발 네트워크
 - 야메지역농업추진협의회 茶부회를 결성하여, 시정촌담당자, JA영농지도원, 현시험장기술원, 현(현청, 농림부, 방제소, 보급센타), 현 다업연합회 사무국등의 구성원이 정례회를 실시
 - 월 1~2회 기술정보의 제공, 다업년보 작성
 - 매년「야메차 재배이력」(평탄, 산간용)의 작성
 - 주요 관리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자가 현지에서 지도하고, 각 지구별 강습회의 지침을 작성, 분기별로 강습회 실시, 재배력 설명회, 제조강습회 실시

- 방제 모니터회(청년모임)에서 매월 정기조사와 방제속보 제공
- 각종 대회 출품차의 제조
 - 관내 4개소의 전용공장에서 제조, 전국품평회에서 옥로차는 12년 연속 대신상 수상, 텐차도 다수 수상

○ 신기술시험다원의 설치

- 2009년 옥로생력화고품질재배 피복실증다원 설치
- 2012년 환경부하를 줄이는 효율시비로서 점적시비실증다원 설치

○ 야메차 오리지널 브랜드 개발

- 후쿠오카현 차 시험장에서 “사이미도리” 라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야메차 오리지널 브랜드로 육성

3.1.3. 차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 개최

○ 각 지구 다업진흥협의회 단위로 차 홍보 관련 이벤트 추진

- 신차 축제, 스모대회 협찬, 축구 J리그 팀에 야메차 스폰스 제공
- 초·중학교에 오차 교실 개설(교육교재 작성, 인스트럭트 강의 개설)
- 동경, 후쿠오카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측활동 추진
- 옥로차 컨테스트 출품
- 야메시 관광사업개발위원회 참여, 여행사와 제휴하여 패키지 관광 루트 개발, 투어프로그램 실시
- 차 문화관, 기념관, 차밭상지에서 이벤트 행사 추진

3.2. 2013년도 다업진흥계획

3.2.1. 하드 사업

- 차경영안정긴급대책사업: 차나무 개식등
- 활력있는 고수익추진사업: 승용형기계, 가공시설, 방상시설 지원
- 중산간 진흥대책: 차공장기계, 옥로재배시설 지원

3.2.2. 소프트 사업

- 야메차생산진흥사업: 관련조직 보조금, 출품장려금
- 전통옥로진흥대책: 신설 옥로재배단지 지원
- 옥로진흥대책: 전국 옥로컨테스트등 지원
- 각종인증제도 지원: J-GAP등
- 차 소비확대대책 지원: 이벤트 행사 지원
- 차 교육프로그램 보조: 차 강좌 및 각급학교 차교육활동 지원(차공급)

3.3. 야메차의 향후과제

- 전반적인 녹차시장의 저조로 녹차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. 야메차는 야메차의 명성을 바탕으로 고품질·고가격 전략(타 산지에 비하여 1,000엔/kg 높음)을 추진해 왔으며, 이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어왔으며, 이력추적에 의한 원산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왔음.
- 그러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급차 수요층에 대응한 야메차의 광고 홍보의 확대를 통하여 브랜드의 판매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, 산지의 차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.